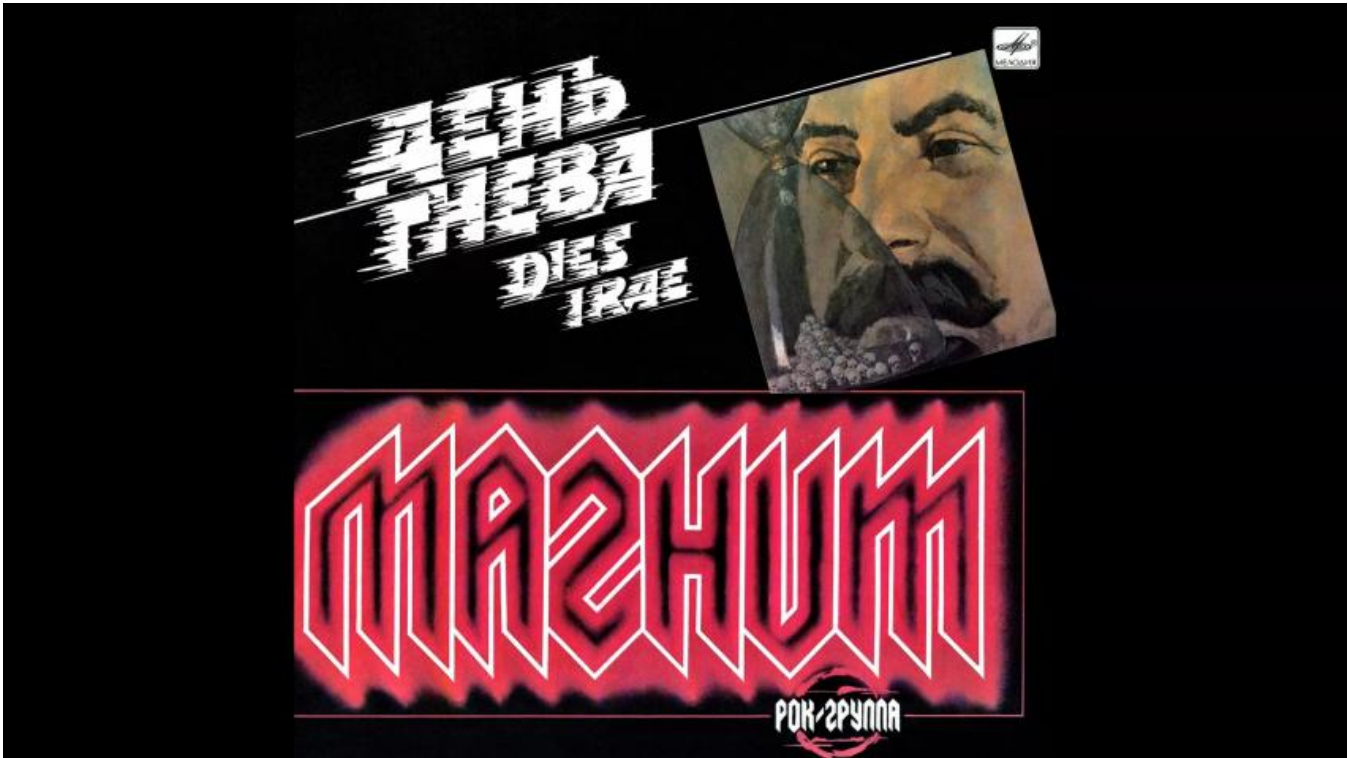


???:야, 노래로 반스탈린주의 할수 이썸 ㅇㅇ

GRU



글라스노스트 시절, 심심하면 스탈린 까던 시절입니다. (아마 이에 반동으로 요즘 들어서 스탈린 재 우상화 여론이 돌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는 연구를 본것 같군요..)

신생 록 그룹인 마그니트(자-석)이라는 친구들은 이름은 알려지지 못했지만, 최고의 빠와메-탈을 보여주던 녀석들이 있었습니다.

1987년에 성공적인 사미즈따프를 뽐고('록을 들어라!', '형사')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가 88년에 낸 앨범에 스탈린주의에 반하고,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는 희망찬(?) 앨범을 하나 내놓습니다.

그거시 바로 저-기 보이는 스탈린이 앨범자켓에 들어간(!) 1988 앨범(국영기업 멜로디야에서 1989년에 공식발매) '진노의 날'(Зен неба)이지요.

옛날에라면 '와 X발 아무리 스탈린이 까여도 우디서 노래쫓가리가 공산당 대뽕을 앨범자켓에다가 붙여놓냐? 미친놈;' 하고 개털릴 앨범자켓 + 음악이었는데.

울ㄱ 하고 틀어준 이유는 글라스노스트인 것도 있지만, 당시에 헹헹하던 스탈린 까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



(사실 마그니트는 어둠의 스사모였다! 5개년 200% 달성 못해서 죄송합니다!)

그외에도 다양한 스탈린 까기들이 있었는데, 참 고런거 보면 문화는 정말 강력한 프로퍼간다 무기입니다.